

四象醫學의 창도자

李濟馬

「東醫寶鑑」과 쌍벽  
「東醫壽世保元」 남겨



朴星來

〈韓國外國語大교수·科學史〉

인간은 다 같은 권리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들 말한다. 글썬, 같은 권리를 갖고 태어나 같은 행복을 모두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람이 세상에 태어 나는 것만큼 불공평한 것도 많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아예 부자가 되어 태어 나는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게 태어 난다. 그렇다면 건강이라도 모두 비슷하게 타고 난다면 좀 공평할텐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 키도 각각 다르고 예쁘고 미운 것도 서로 틀리는가 하면 건강도 많이 다르다.

이렇게 사람마다 서로 다르고 보면 같은 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수도 없지 않다. 원래 열이 있는 체질에는 인삼은 좋지 않다던가 하는 말이 나는 것이 때문이다.

◇인삼 복용도 體質에 따라 效果가 다르다

인삼 복용이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그 약효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의 타고 난 체질에 따라 진찰의 방법은 물론이고, 약을 쓰는 법이 달라야 할 것이다. 동양의 전통적인 한의학에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하나의 훌륭한 이론으로 정립시켜 준 학자가 100년 전에 활약한 우리 나라의 李濟馬(1837-1900)이다.

그의 이론은 「東醫壽世保元」으로 남아 있어 17세기 초의 許浚이 지은 「東醫寶鑑」과 함께 우리 전통의학의 대표적 고전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1937년 음력 3월 19일 함경도 함흥의 盤龍山 아래에서 李攀五의 아들도 태어났다.

사람이 타고난 체질에 따라 진찰의 방법은 물론이고 약을 쓰는 법이 달라야 할 것이다. 동양의 전통적인 한의학에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하나의 훌륭한 이론으로 정립시켜 준 학자가 100년 전에 활약한 우리나라의 李濟馬(1837-1900)이다.

음양은 나뉘는 과정을 거듭하여 이 세상을 만드는데 우선 처음 나뉘어 나오는 것을 동양철학은 太陽, 少陽, 太陰, 少陰 이라 규정했다. 이것이 곧 사상이며, 이제마는 인간의 체질을 바로 이렇게 4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양반이었으나 그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근처 주막집의 노처녀였다고도 전해진다. 여하간 그는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고, 그런 사정도 있어 의학에 뜻을 두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마의 이름은 이제 아주 널리 알려져 있건만 그의 일생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그가 제마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꿈에 제주도 말을 보고 그를 낳았기 때문이란 말이 전한다. 사실은 차치하고 그는 어려서 아닌게 아니라 제주도 말만큼이나 잘 뛰고 놀았던 것 같다.

그는 호가 東武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가 어려서 칼싸움과 전쟁놀이를 좋아해서 얻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四象은 곧 太陽 · 少陽 · 太陰 · 少陰

「동의수세보원」에 실린 그의 의학 사상 알맹이를 이루는 생각은 “四象醫學”이다. 사상이란 말 자체는 이제마가 만든 것이 아니다. 「주역」을 거쳐 음양오행사상을 통해 전개된 동양의 지혜에 의하면 이 세상은 원래 태극에서 시작된다.

태극은 陰과 陽을 낳고 이 둘이 서로 다투고 어울려 세상의 변화와 현상이 생긴다.

음양은 나뉘는 과정을 거듭하여 이 세상을 만드는데 우선 처음 나뉘어 나오는 것을 동양 철학은 太陽, 少陽, 太陰, 少陰이라 규정했다. 이것이 곧 사상이며, 이제마는 인간의 체질을 바로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5가

지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었다. 곡식도 다섯을 기본으로 골라 五穀이라 했고, 인간의 관계에는 五倫이 있으며, 소리에는 五音, 인체의 내장도 五臟이 있다는 등 무엇이건 5로 분류하는 버릇이었다.

이제마는 지나치게 5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뛰어 넘어 4분법을 도입한 셈이었다. 「주역」의 사상에서 힌트를 얻어 그는 사람을 서로 다른 체질에 따라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넷으로 나눴다.

◇四象人의 특징을 분류 설명했다.

그 나름의 생리학과 해부학 이론을 이용하여 이제마는 사상인의 특징을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 태양인: 허파가 크고 간은 작다.
- 태음인: 간이 크고 허파가 작다.
- 소양인: 지라느 크고 콩팥이 작다.
- 소음인: 콩팥이 크고 지라느 작다.

이처럼 허파, 지라, 간, 콩팥의 크기에 따라 인간의 체질이 좌우된다면 5장 가운데 심장은 무엇인가? 이제마에 따르면 심장은 곧 태극이어서, 이것이 인간의 사상을 좌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 네가지 장기의 크기를 좌우하는 원인은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는 인간이 느끼는 네가지 감정이 이들 네 장기의 크기를 좌우한다고 보았다. 즉 기쁨, 노함, 슬픔, 즐거움(喜, 怒, 哀, 樂)이 장기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사람이 자주 노하면 허리와 늑골이 서로 닿았다 떨어지게 되고, 간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상하기 쉽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쁨은 지라를, 슬픔은 콩팥을, 그리고 즐거움은 허파를 영향하여 크기를 좌우하게 된다.

사람이 자주 노하면 허리와 늑골이 서로 닿았다 떨어지게 되고, 간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상하기 쉽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쁨은 지라를, 슬픔은 콩팥을, 그리고 즐거움은 허파를 영향하여 크기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다.

감정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상태를 『中』이라 하고, 그것이 발동하여 모두 절도에 맞으면 이를 『和』라 하는데, 인간은 스스로 수양을 쌓아 이런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사상인은 체질이 다른 만큼 체격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체격의 차이는 얼핏 판단할 정도로 뚜렷하다고는 역시 생각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사상인은 각각 기질에도 차이가 있고, 잘 걸리는 병에도 차이가 있다. 또 잘 듣는 약에도 구별이 있어 이제마는 사상인에게 각각 잘 맞는 약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한의사들이 사상의학을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태음인의 경우에는 기관지염, 폐염, 결핵, 천식등 호흡기 질환이 많이 걸리고, 고혈압, 변비, 치질도 많다. 한편 소음인은 위장에 관련된 질병에 많이 걸린다. 또 녹용은 태음인에게나 알맞고, 인삼은 소음인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

음식으로 예를 든다면 태양인에게는 포도·앵두같은 과일이 좋고 조개도 좋다. 소양인에게는 돼지고기·해삼·참외가 좋고, 태음인에게는 쇠고기·무우·콩이 좋고, 소음인에게는 개고기·닭고기·당근이 좋다.

#### ◇醫學사상은 豫防의학의 경지

이제마의 의학 사상은 예방의학의 경지에도 미친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인간이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희로애락을 둘러싼 욕망 때문이다. 이런 감정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상태를 『中』이라 하고, 그것이 발동하여 모두 절도에 맞으면 이를 『和』라 하는데, 인간은 스스로 수양을 쌓아 이런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즉 건강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이 특히 절제하기에 힘쓸 욕망으로 그는 술과 색, 재물과 권세의 넷을 지적

했다. 이 네가지 욕심이야 말로 인간을 가두는 감옥과도 같다는 것이다. 결국 도덕적인 인간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마의 이론이다.

이제마는 분명히 역사, 철학 등 폭넓은 독서를 했고, 많은 생각을 했던 깊이있는 사상가이다. 그리고 그의 사상의학은 「주역」의 사상에서 힌트를 얻어 발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혹시 그의 사상의학은 서양의학의 전통까지를 이제마가 배워 이를 동양의 전통의학과 종합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우선 그보다 거의 2천년 전 후한시대의 명의 張仲景은 인간의 질병을 태양병, 소양병, 陽明病, 태음병, 소음병, 剛陰病 등으로 분류한 일이 있다. 그가 가장 존경한다고 밝힌 장중경이고 보면 이런 분류에서 힌트를 받았을 것도 같다.

또 서양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인체에는 四體液이 있어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건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마의 의학이론에도 4체액이 있다. 이름은 臍汁, 膜汁, 血汁, 精汁으로 다르지만 이들이 인체의 어느 장기에서 어떻게 생기는지도 잘 설명되어 있다.

1850년대에 이미 서양의학은 중국에서 번역된 것이 우리 나라에도 제법 들어 오고 있었다. 예를 들면 崔漢綺의 身機踐驗은 그런 좋은 예이다.

정말 이제마가 서양 의학까지 받아 들여 동서양을 뛰어 넘는 의학체계를 만들려던 야심에서 그의 「동의수세보원」을 썼는지는 아직 연구를 더 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뒤에 서열에게도 관직의 문이 조금 열리자 그는 50세에 한번 鎮海 현감을 지낸 일도 있다. 그러나 불과 87년 전에 세상을 뜬 우리 의학사의 대인물에 대해 우리가 아는 일은 아직 너무나 빈약하다.

인간이 특히 절제하기에 힘쓸 욕망으로 그는 술과 색, 재물과 권세의 넷을 지적했다. 이 네가지 욕심이야 말로 인간을 가두는 감옥과도 같다는 것이다. 결국 도덕적인 인간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마의 이론이다.